

칼빈주의가 제네바의 변혁에 미친 영향에 관한 고찰

A Research on J. Calvin's Reformation of Geneva and Its Transformation

최용준 (Yong Joon (John) Choi)*

Abstract

This article deals with J. Calvin's reformation which started in Geneva and how it transformed the whole city. As the second generation of Reformation after M. Luther in Germany and H. Zwingli in Zürich, Calvin did so many remarkable ministries. In this article, an investigation is made to see how he transformed Geneva together with Protestant Christians who came to that city from France. Many French Protestant (Huguenots) refugees brought their skills and know-how to Geneva. As pastors, teachers, lawyers, doctors, printers, watchmakers, goldsmiths, textile experts or bankers, they contributed greatly to the city's economic growth. After the Revocation of the Edict of Nantes (1685), Geneva once again became a safe haven for Protestants from France. They boosted the industries that Geneva became famous in the 18th century for watchmaking, banking and the manufacture of a type of printed or painted fabric. They also consolidated the city as a centre for art and science. Following the adoption of the Reformation, Geneva was then called as the "Protestant Rome" and it grew especially as the global center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s well. In conclusion, the implications of this transformation to Korean context are drawn.

Key Words : Calvinism, Reformation, Huguenots, Geneva, Social transformation

이 연구는 한동대학교 2018학년 교내연구지원 사업에 의한 것임.

* 한동대학교 ICT창업학부 교수(Handong Global University),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558, crosspower@handong.edu

2018년 06월 12일 접수, 08월 02일 최종수정, 08월 05일 게재확정

I. 서론

2017년은 교회개혁(Reformation) 500주년이었다. 하지만 이 개혁은 사실 ‘교회개혁’만이 아니라 사회 문화 전체를 아우르는 ‘총체적 변혁(Transformation)’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 대표적인 예 중 하나가 스위스 제네바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의 개혁가 장 칼뱅(Jean Calvin)이 프랑스 개신교도들인 위그노들(Huguenots)과 함께 제네바에 오기 전까지 스위스는 사실 매우 가난한 나라였다. 특히 당시 제네바는 각종 범죄자들, 정치적 망명자들, 스파이들 그리고 선원들로 가득차 술 취함과 매춘이 성행하여 “유럽에서도 가장 냄새나는 도시(the smelliest city in Europe)”로 불렸다(Bloomer, 2009: 5). 칼뱅도 임종 며칠 전 남긴 유언을 보면 그가 처음 제네바에 왔을 때 이 도시는 “무법천지(Tout estoit en tumulte)”였다고 말하고 있다(Calvin, 1870: 892). 하지만 전 세계로 흩어진 위그노들은 비록 난민들이었지만 사실상 고급 기술을 가진 정밀 시계 가공업자, 인쇄업자, 금속장인, 섬유업자 및 전문적인 직업인들, 즉 기업가, 은행가, 교사, 법률가, 의사, 상인들이어서 이들의 탈출은 프랑스 편에서 볼 때 고급인력의 고갈(brain drain)이었다(Treasure, 2013: 369-375). 제네바는 당시 인구가 만 명 정도였으나 칼뱅의 개혁을 수용하고 그를 통해 위그노 난민들을 받아들이면서 인구는 두 배로 급증했고 칼뱅의 직업 소명론 및 개신교 노동윤리 등의 성경적 세계관은 제네바를 놀랍게 변혁시켰다. 나아가 프랑스의 앙리 4세(Henri IV)가 1598년에 개신교도의 신앙적 자유를 어느 정도 허용하기 위해 선포한 낭트 칙령(L'édit de Nantes)이 1685년 루이 14세(Louis XIV)의 퐁텐블로 칙령(L'édit de Fontainebleau)에 의해 폐지된 이후 더 많은 위그노들이 스위스뿐만 아니라 영국, 네덜란드, 독일 등지로 흩어졌는데 이들은 그 나라의 경제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으며 특히 영국의 산업혁명에도 큰 기여를 했다(Beaudreau, 2016; huguenotmuseum.org/event/huguenots-and-the-industrial-revolution).

칼뱅은 1541년부터 1564년까지 제네바에서 개혁 운동을 하면서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면에서도 변혁을 시도했다. 무엇보다 설교, 치리회(Consistoire) 및 법제정을 통해 영적, 도덕적 및 사회적 개혁을 시행하였는데 많은 어려움과 반발이 있었으나 마침내 괄목할만한 열매를 맺었으며 1559년에는 제네바 아카데미(Geneva Academy)를 창설하여 교육 개혁을 시도하였고 이 기관은 나중에 콜레주 칼뱅(Collège Calvin) 및 제네바 대학교로 발전하였다(Graham, 1971). 그 후에 제네바가 “개신교의 로마(Protestant

Rome)”로 불리면서 성시화의 모델 및 가장 지속 가능한 도시로 인정받게 된 것은 결코 칼뱅의 사상과 무관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 제네바는 인구가 20만 정도이지만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28대 윌슨(T. Woodrow Wilson) 대통령에 의해 창설된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의 본부가 있었으며 이 건물이 지금은 유엔(UN)의 유럽 본부가 되었고 기타 국제기구들이 200여개나 있는 글로벌한 외교적 수도(diplomatic capital)가 되었다. 나아가 최근 제 4차 산업혁명을 전 세계에 화두로 제시한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도 제네바 대학교의 경제학 교수로 봉직한 후 은퇴했으며 그가 이끄는 다보스 포럼(Davos Forum)으로 유명한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도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다.

지금까지 칼뱅의 생애와 신학에 대한 연구는 매우 많이 이루어졌으며(McGrath, 1990; 정성구, 1980; 김재성, 1997; 문병호, 2015 등) 그의 사상과 사역이 어떻게 당시 제네바를 변화시켰고(Bainton, 1985; Biéler, 1959; Bousma, 1988; Wallace, 1988; Benedict, 2009; 오덕교, 2005; 안인섭, 2015) 여러 나라로 확산되었는가에 대한 연구도 많다(Bratt, 1964; McNeill, 1967; Reid, 1982). 하지만 칼빈주의가 당시의 제네바를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국제적인 도시로 발전시킨 공헌에 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칼뱅의 사역과 사상이 어떻게 그 당시의 제네바를 총체적으로 변혁시킨 동시에 현재의 제네바를 낳는데 공헌했는지 고찰한 후 이것이 한국 사회에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칼빈주의와 제네바의 변혁

1. 역사적 배경

제네바의 역사는 블루머(Thomas Bloomer)가 말한 것처럼 폭력과 부패, 음모와 용기 등 다양한 요소로 가득차 있다(Bloomer, 2008: 103). 중세의 제네바는 이태리, 프랑스, 독일 또는 오스트리아를 통해 유럽 여러 곳으로 가는 사람들이 만나는 교차로이며 이태리와 북유럽을 연결하는 무역의 중심지로 한 때 번영하여 메디치(Medici) 은행가들은 1422년에 이곳에 지점을 설립하기도 했으며 무역 전시회가 열렸기 때문에 여관

들도 많았고 상인들 외에도 제네바 호수의 항해자들, 정치적 망명자들, 범죄자들 및 스파이들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프랑스가 영국과 백년 전쟁을 치른 후 프랑스 왕이 무역의 중심지를 제네바에서 리옹(Lyon)으로 옮기는 바람에 제네바는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Benedict, 2009: 2). 또한 16세기 초반 제네바의 교회들도 유럽의 다른 교회들 처럼 부패하여 주일 예배 시간에 참여하지 않고 집에서 도박하는 사람, 교회 내에서 크게 웃거나 소동을 벌이는 사람, 술꾼들, 좀도둑들, 다투고 싸우는 사람들 및 간통을 범한 사람들도 있었으며 심지어 가톨릭 사제들이 운영하는 사창가들이 성업할 정도였다. 이처럼 교회가 성결을 상실하자 영적 힘과 권위 그리고 리더십도 잃어버리게 되어 (Bloomer, 2009: 5) 제네바는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제네바의 독립을 추구했던 의회(Le Grand Conseil)는 1526년 2월 20일에 베른(Bern) 및 프리부르(Fribourg)와 동맹을 맺어 구 스위스연방(Alte Eidgenossenschaft)에 가입함으로써 시민들의 자유를 보호하는데 성공하였으며 그 해 3월 12일에 스위스 다른 주들의 대표들이 제네바 의회에 모여 이를 확정했다. 따라서 제네바는 중세시대부터 그 지역을 다스리던 주교의 통치권을 박탈하여 영토 확장을 꾀하던 사보이(Savoy) 공작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었다. 이처럼 16세기 유럽의 대부분은 여전히 각 지역마다 군주가 통치하였으나 제네바만큼은 독립을 쟁취하여 자치정부를 가진 도시공화국이 되었다. 나아가 베른이 1528년에 종교개혁을 받아들인 후 여러 지역에 확대하면서 프랑스어권에는 파렐(Guillaume Farel)을 개혁자로 파송하였다. 파렐은 제네바로 와서 1532년부터 개혁운동을 시작했고 1535년 8월 26일, 제네바 시의원들은 만장일치로 개신교도시가 되기로 결정하였다. 가톨릭 미사는 금지되었고 성상들은 제거되었으며 대부분의 교회 재산은 몰수되어 이것으로 시립 병원을 세우자 가톨릭 공동체들은 제네바를 떠나기 시작했다. 예배는 단순화되었으며 모든 가톨릭 휴일들도 폐지되었고 매춘, 간음, 가무 및 주점들은 엄격히 금지되었다. 이어 프랑스가 사보이지역을 점령하고 베른이 뫼이 드 보(Pays de Vaud)를 통제하자 제네바 시민들은 성경에 따라 살기로 서약했다(Benedict, 2009: 3). 하지만 파렐은 혼자 모든 개혁사역을 감당할 수 없음을 알았고 마침 칼뱅이 제네바를 방문하자 그의 동역을 요구하였다.

2. 제네바 1차 개혁(1536-1538)

1536년 7월부터 2년간 파렐과 함께 칼뱅은 제네바를 개혁하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다. 비록 시민들이 정의롭게 살기로 맹세하였으나 분파가 생겨났고 의심도 있었는데 당시 칼뱅은 약관 27세였다. 가장 심각한 교회 정치적 갈등은 제네바와 동맹을 맺은 도시인 베른이 교회 예배에 통일성을 제안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가령 성찬식에서 무교병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파렐과 칼뱅은 이것을 따르지 않고 연기하였다. 결국 취리히 총회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져 시의회는 이것을 요구하였으나 파렐과 칼뱅은 부활절 예배에서 성찬을 실시하는 것을 거부하였고 결국 시의회는 이 두 개혁자를 추방하였다(McGrath, 1990: 98-100; Cottret, 2000: 129-131; Parker, 2006: 85-90; Wallas, 1988: 19-20; McNeill, 1967: 142-143). 그리하여 파렐은 너샤텔(Neuchâtel)로 갔고 칼뱅은 바젤(Basel)에 머물다 부쩌(Marin Bucer)의 초청으로 스트라스부르(Strasbourg)로 돌아가 그곳에 있는 프랑스 난민교회의 목회자가 되었다.

3. 제네바 2차 개혁(1541-1564)

1) 개혁의 목표와 세 방법

하지만 1541년 9월 13일, 칼뱅은 제네바 시의회의 요청으로 다시 제네바로 돌아왔다. 당시 제네바는 가톨릭으로 돌이키려는 세력의 위협을 받고 있어 그동안의 개혁이 물거품이 될 상황이었다. 따라서 칼뱅이 다시금 제네바의 선임 목회자로 임명되자 유럽의 수많은 개신교도들은 환영했으며 특히 프랑스의 많은 위그노들이 다시 제네바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칼뱅은 기존의 교회 및 사회질서가 무너져 진공상태에 있던 제네바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한 “총체적 변혁”이라는 실험을 감행했다. 도시의 다양한 필요에 대해 단지 목회자로서 뿐만 아니라 법률가와 신학자로서 성경적 원칙에 의해 정부 구조를 재정비하고 사회를 개혁하면서 교회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했다. 나아가 다양한 실제적 이슈들에 대해서도 가르치면서 실행에 옮겼다. 결국 그가 가졌던 비전은 제네바 시민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의 모범적인 공동체가 되어 복음의 빛을 전 세계에 퍼뜨리는 통로로 쓰임 받는 것이었다(Benedict, 2009: 4).

블루머는 깔뱅이 추구한 개혁의 세 가지 목표를 다음과 같이 잘 요약하였다. 첫째, 복음을 개인들에게 올바르게 전하여 사람들이 구원받고 변화된 삶을 살며 교회도 성경적 성결함을 회복하는 것이다. 둘째, 시민들을 바로 가르쳐 올바르게 살고 권세를 가진 공무원들은 공의로 다스리며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영역에서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알게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개인들 및 지도자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성경의 교훈을 삶의 모든 영역에 바르게 적용하게 하는 것이었다(Bloomer, 2008: 108).

이를 위해 깔뱅이 사용한 세 가지 중요한 개혁 수단이 있었는데 베네딕트는 이것이 설교, 치리회 그리고 법제정이었다고 말한다(Benedict, 2009: 5-7). 먼저 그가 강조한 것은 설교였다. 그는 제네바 시민들이 말씀을 통해 개인적으로 회심하여 하나님을 진정 신뢰하는 것이 개혁의 기초라고 믿었다. 따라서 시민들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성경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가르쳐 그들이 이를 상황에 올바르게 적용하게 함으로써 제네바를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제네바 교회법에 따라 세 군데 교구에서 세 명의 목사가 매주 26번 설교했는데 깔뱅은 주일에 두 번, 주 중에 세 번했다. 이것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한 시의회는 1542년 말, 주일에 한번만 설교하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1549년 10월에 그는 다시 주일에 두 번 설교하도록 요청을 받았다. 그의 설교는 보통 한 시간이 넘었으며 원고를 사용하지 않았다. 비서가 그의 설교를 기록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1549년 이전의 원고는 거의 남아 있지 않다. 그의 설교는 분명한 성경 주해와 더불어 당시 제네바 및 세계정세에 맞는 주제에 대한 적용으로 이루어졌다. 그는 제네바에서 25년간 사역하면서 약 4천 번 설교했으며 이것은 제네바 변혁의 큰 동력이 되었다(Benedict, 2009: 5).

두 번째로 깔뱅이 사용한 개혁 수단은 치리회였다. 그는 무엇보다 안정된 치리회가 필요함을 절감하여 다시 제네바에 온 지 2주 만에 제네바 “교회법(*Ordonnances ecclésiastiques*)”을 작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했는데 여기에 치리회가 들어있었다. 약간의 수정을 거친 후 이 법은 1541년 11월 20일 주일에 승인되어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이 치리회는 12명의 목사들과 시의회에서 매년 선출된 12명의 장로들로 구성되었으며 매주 목요일마다 모여 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했다. 이 치리회는 이전에 이미 바젤에서 외콜람파디우스(Johannes Oecolampadius) 및 스트라스부르에서 부쩌가 시작했다가 실패했지만, 기독교 윤리를 어기고 성만찬 공동체를 분열시키거나 더럽히는 사람은 경고하여 회개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성찬 참여를 금지시켰다. 또한 이 법은 교회의

직분을 네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목사는 설교하고 성만찬을 집행하며, 교사는 신앙교육을 하며, 장로는 권징을 담당하고 집사는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는 직분이었다. 이러한 직분은 당시 가톨릭교회에는 전혀 없던 매우 혁신적인 제도였다(Ganoczy, 2004: 15-17). 시정부는 시민들을 소환하는 권한을 계속 가지고 있었고 치리회는 교회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재판할 수 있었으나 집행권은 시정부에 있었다(Cottret, 2000: 165-166).

나아가 칼뱅은 가톨릭이 지배하는 지역에 있는 개신교도들에게 제네바로 이주할 것을 권고하였다. 당시 제네바는 바젤처럼 길드조직이 시의회에 강하게 영향을 미쳐 노동시장에 외국인들이 오는 것을 경계하던 것과는 달리 길드조직이 시의회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적어 외국 난민들을 수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따라서 제네바에는 점점 더 많은 개신교 난민들이 모여들었고 이들은 칼뱅의 가르침에 따라 제네바의 발전을 위해 다양하게 공헌하였다. 칼뱅은 제네바 시민들이 점진적으로 모든 가톨릭 관습들을 버리고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여하여 설교를 경청하며 소요리문답을 배워 성찬에 올바르게 참여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성적 문란, 간음, 도박, 과도한 음주 또는 지나친 가무, 경제적 사기 또는 고리대금 등의 행위를 하거나 설교자들에 대해 무고한 혐담을 하고 외국인들에 대해 불평하는 사람은 치리의 대상이었다. 치리는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졌는데 첫째는 회개할 경우 치리회 앞에서 훈계를 받고 둘째는 회개하지 않거나 더 심각한 죄를 범했을 경우 분명한 회개의 증거가 있을 때까지 수찬 정지를 당했다. 가장 심각한 치리는 시의 법률을 위반한 경우로 이는 시정부에 넘겨져 법적 처벌을 받았다(Benedict, 2009: 5-7).

세 번째로 칼뱅이 사용한 개혁 수단은 법률 제정이었다. 그는 제네바 시민들의 삶을 변혁하기 위해서는 교회법뿐만 아니라 시에서 정한 법도 매우 중요하며 따라서 하나님 나라와 지상의 왕국은 연결된다고 보았고 지상의 권세를 가진 기관들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대신하여 참된 종교를 방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원래 칼뱅도 법을 전공했으므로 제네바 시의 법률 제정에 대해 중요한 자문 역할을 할 수 있었다.¹⁾ 가령 유아세례 시 아이들에게 성자의 이름을 부여하던 가톨릭 전통을 폐기하는 법률을 정하여 특정한 이름들-가령 엠마누엘(Emmanuel), 만성인(Toussaint), 십자가(Croix) 또는 주일(Dimanche)-의 사용을 금했다. 다른 법률은 가령 저속한 노래를

1) 칼뱅은 제네바에서 참정권 중 피선거권은 없었고 선거권만 가지고 있었다.

부르지 못하게 하고 주일 예배 시간에 거리를 배회하지 못하게 하며 도박을 허용하지 않는 주점 및 식당만 영업을 허가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거나 시장 등 고위 공무원들에 대해 부당한 비방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춤은 전면 금하였으며 기타 음란, 술주정, 방랑 또는 심지어 시간을 어리석게 허비하는 것과 허랑방탕하는 것도 금하였다(Benedict, 2009: 7).

그 외에도 1542년에 갈뱅은 스트라스부르에서 사용하던 예배모범을 참고하여 제네바 “교회의 기도 및 찬송 규범(*La Forme des Prières et Chants Ecclésiastiques*)”을 출판했다. 그는 음악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성경봉독을 지원하는 음악도 사용하길 원했다. 스트라스부르에서 마로(Clément Marot)가 만든 시편 찬송에 더 많은 찬송을 첨가하여 자신이 작곡하기도 했다. 1542년에 마로가 제네바로 오면서 19개의 시편찬송이 추가되었고 다른 난민이었던 부르조아(Louis Bourgeois)도 제네바에 16년간 살면서 많은 찬송을 작곡하였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만복의 근원 하나님(Old Hundredth)’이다(Cottret, 2000: 172-174).

같은 해 갈뱅은 제네바 교회 요리문답서(*Catéchisme de l'Eglise de Genève*)도 발간했는데 이것은 스트라스부르에서 개혁운동을 주도하던 부쩌가 1534년에 발간한 ‘성경을 설명하는 소책자(*Kurze Schriftliche Erklärung*)’를 참고한 것이다. 반면에 그가 제네바에 처음 머물 때 작성한 요리문답은 주로 루터의 대요리문답을 참고하여 작성했는데 이 대요리문답은 주로 교육적인 목적에서 율법, 신앙 그리고 기도에 관한 내용이었으나 나중에 발간된 것은 신앙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율법과 기도의 순으로 되어 있다(Cottret, 2000: 170-171). 기타 제네바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관해 갈뱅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시민들이 힘을 모아 성벽을 다시 쌓아 외부의 침략에 대비해야 함을 강조했다(Bloomer, 2008: 109).

2) 처리와 반대 (1546-1553)

당시 제네바에는 가족에 대해 무책임하고 술에 자주 취하며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 이들은 시의 무질서와 빈곤 그리고 부도덕성을 조장했다. 이에 대해 갈뱅은 가장은 먼저 가족을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다. 가장이 열심히 일해서 세금 및 모든 요금들을 성실히 납부하고 십일조를 하며 근검절약할 것을 가르쳤다. 일

(work)이 곧 예배(worship)이므로 성실과 정직으로 최선을 다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모든 신자들은 거룩한 소명을 가지고 있음을 가르쳤다(Larson, 2009: 1-20; Höpfl, 1985).

하지만 그의 개혁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1546년경 방종주의자들이 점차 조직화되면서 영적 운동가들 또는 애국주의자들이라고 불렸다(Schaff, 2006). 그들은 주로 부유하고 정치력이 있으며 서로 연결된 제네바의 기득권층으로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더 이상 교회법이나 시민법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Cottret 2000: 185-186). 가령 1546년 1월말, 아모(Pierre Ameaux)는 카드놀이를 하다가 치리회와 부딪혔다. 그는 갈뱅을 “삐까르(Picard)”라고 놀리면서 제네바 시민들의 반프랑스 정서를 부추겼고 갈뱅이 잘못된 교리를 가르친다고 고소했다. 하지만 아모는 시의회의 처벌을 받았으며 시내를 걸어가면서 사죄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했다(Cottret 2000: 187). 갈뱅을 다시 제네바로 데리고 온 삐랭(Ani Perrin)도 이 사건 이후 공적으로 그를 대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파브르(Françoise Favre)라는 부잣집 딸과 결혼하였는데 그의 아내 및 장인은 치리회와 갈등관계에 있었다. 법원은 삐랭과 많은 귀족들이 춤추는 것을 금지한 법을 위반한 것을 알고 그를 소환했는데 처음에 그는 이 명령을 무시했다가 갈뱅의 편지를 받고 치리회에 출두했다(Parker 2006: 127).

1547년에는 제네바 시의원 다수가 갈뱅을 반대하기에 이르렀고 6월 27일에는 그가 설교하던 성 삐에르 교회당 설교단에서 서명도 없이 제네바 사투리로 적은 헐박 편지가 발견되었다. 교회와 정부 양자에 대한 음모라고 의심되어 시의회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 결과 그루에(Jacques Gruet)가 체포되었고 그의 집을 압수 수색하자 증거물들이 발견되었다. 그는 결국 교회 지도자들을 음해하려던 범죄들을 자백했고 정죄되어 교수형에 처해졌다(Cottret 2000: 190-191). 이처럼 방종주의자들은 계속 조직적으로 반대하면서 목회자들을 모욕하고 치리회의 권위에 도전했으나 시의회는 중재를 위해 노력했다. 삐랭이 1552년 2월에 평의원으로 선출되자 갈뱅은 자신의 권위가 매우 약화된 것처럼 보여 사의를 표했다. 하지만 이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반대파들도 갈뱅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Parker 2006: 139-145).

3) 개혁의 성취 (1553-1555)

삼위일체를 부인하던 스페인 출신의 의학자요 신학자이던 세르베투스(Michael Servetus)

가 제네바 시의회의 재판으로 1553년에 처형된 후 칼뱅의 개혁은 거의 이루어진 것 같이 보였으나 마무리하는데 2년이 더 걸렸다. 칼뱅은 치리회가 출교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여러 혐의로 치리를 받던 베르텔리에(Philibert Berthelier)는 한 목사를 모욕하여 출교 당했으나 다시 성찬에 참여하게 해 달라고 시의회에 요청했는데 칼뱅은 이에 반대했다. 그러자 시의회는 교회법을 재검토하여 칼뱅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베르텔리에는 항소하였고 당시 칼뱅에 대해 반감을 품던 의원들이 많았던 시의회는 판결을 번복하여 출교권이 치리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의회에 있다고 결정하였다. 그러자 목사들이 항의하였고 스위스 교회 전체의 의견을 구하여 결국 시의회는 치리회의 권한으로 유지하기로 재결정하였다(Cottret 2000: 195-198).

그 후 방종주의자들은 1555년 2월 선거에서 참패하였고 많은 프랑스 개신교 난민들은 시민권을 받아 칼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선거에서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자 5월 16일에 방종주의자들은 만취하여 길거리에서 시위하며 프랑스인들이 사는 집들을 불사르기 시작했다. 나아가 빼랭은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곧 진압되었으며 그가 시청으로 소환되자 그와 일행들은 제네바를 탈출하였고 체포된 네 명은 처형되었다. 1557년 1월 베른과의 시민권조약이 갱신된 후 칼뱅의 개혁은 확고히 마무리되었다(Cottret, 2000: 198-200).

4) 가정 및 교육 개혁

당시 제네바에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가정을 돌아보지 않고 술 취하며 부정직한 가정들이 많았다. 그 결과 많은 가정들이 빈곤에 허덕였고 여러 가지 부도덕한 일들이 일어났으며 도시의 질서가 무너졌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칼뱅은 개인적 책임을 강조하여 가장이 먼저 가족을 돌보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깨우쳤으며 따라서 열심히 일하여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저축도 할 것을 가르쳤다(Bloomer, 2008: 109). 나아가 시민법정제를 도입하여 가령 아내에게 폭행하는 남편이 있거나 자녀들에게 무관심한 부모가 있다면 이웃들이 판사가 되어 책임을 물었다(Bloomer, 2008: 110).

스트라스부르에 있으면서 부처가 슈투름(Johannes Sturm)을 초빙하여 세운 학교를 보고 깊이 감동을 받은 칼뱅이 제네바에서 가졌던 마지막 주된 관심은 학교를 세워 다음 세대의 인재들을 키우는 것이었다. 개신교도가 된다는 것은 무엇보다 자녀 교육

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그는 여자를 포함한 모든 어린이들에게 최초로 교육을 실시하여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하면서 문맹률을 0%로 낮추었다. 이러한 교육개혁의 배경에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으므로 가톨릭 사제의 중개 없이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으며 성경을 읽고 이해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성경적 세계관이 있었다. 1558년 3월 25일에 학교부지가 선정되었고 다음 해 6월 5일에 개교하였다. 이 학교는 문법을 배우는 학교와 그보다 더 높은 단계의 교육을 받는 학교로 나누어졌다. 칼뱅은 이를 위해 베자(Theodore Beza)를 교장으로 임명했다. 5년 이내 1,200명의 학생들이 문법학교에 등록하였고 300명이 고등 교육 과정에 등록했다. 이 학교를 통해 이후 스코틀랜드의 개혁자가 된 존 나스(John Knox) 및 프랑스 개혁을 위한 수많은 목회자들이 배출되었으며 마침내 고등학교인 폴레쥬 칼뱅 및 제네바 대학교가 되었다(Ganoczy, 2004: 19-20; Cottret, 2000: 256-259). 이 두 학교는 지금까지도 남아 있으며 제네바 대학교는 세계적인 명문대로 발전했다.

5) 구제 사역

칼뱅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여 가난한 과부들과 고아들 그리고 매년 천 명 가량 제네바로 밀려오는 피난민들을 위해 많은 구제 사역을 하였다(Van Halsema, 2007: 238-239). 먼저 그는 그들이 머물 수 있는 집을 마련해 주기 위해 노력했으며 또한 시의회를 설득하여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직업을 알선하면서 의복 제조업을 시작하도록 도와주었다. 즉 가난한 자에게 단지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근본적인 해결책을 도모했던 것이다. 이들을 돕기 위해 사설 복지 기금들도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 가운데 최초로 알려진 것은 칼뱅이 깊이 관여했던 프랑스 기금(Bourse Français)이다. 이 기금을 통해 그들에게 임시 거처, 의료 지원, 직업 재훈련 그리고 식량 및 음식을 구입할 수 있는 돈을 제공하였다. 이 기금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재정적으로 안정된 후에는 다시 이 기금에 기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과부와 고아, 장애인, 환자 및 매우 약한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았으며 그들에 대한 기록도 남아 있다(이상규, 2009: 177-199). 대부분의 서구 개신교 구제단체는 그 기원이 제네바에서 행해진 구제 사역이었다(Bloomer, 2009: 6).

6) 도덕 개혁

당시 제네바는 죄악과 부도덕으로 유명한 도시였다. 주일 예배시간에 집에서 카드놀이를 한 사람, 교회 내에서 크게 웃거나 소동을 벌인 사람, 술꾼들, 좀도둑들, 싸운 사람들, 간통을 범한 사람들은 교회 치리회를 통해 징계를 받았다. 그리하여 술집은 문을 닫았고 그 대신 식당에는 성경이 펼쳐져 있었으며 먼저 기도하지 않은 손님은 음식을 받을 수 없었고 저녁 9시면 문을 닫았다(Van Halsema, 2007: 260-261). 이런 규율에 반대하던 일부 제네바 시민들은 갈뱅을 외국인으로 무시하며 그 이름을 ‘가인(Cain)’으로 적어 악의적으로 비난하면서 그를 괴롭혔다. 하지만 그는 이에 굴하지 않고 곳곳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였고 시간이 지나면서 소돔과 같던 제네바는 점점 하나님의 도시로 변화되어 갔다.

제네바의 법률은 매우 엄격했다. 법을 어긴 시민들을 처벌할 법률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는 법률도 물론 있었다. 갈뱅은 의회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건강과 안전에 관한 법률도 통과시켰는데 다음과 같은 조항들은 유럽에서 처음 제정되었다고 한다:

“거리에 음식 찌꺼기나 분뇨를 버려서는 안 된다. 굴뚝이 없는 방 안에서는 불을 피울 수 없다. 발코니에는 난간을 달아 어린아이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유모들은 아기와 함께 침대에서 잘 수 없다. 집주인들은 경찰의 허가 없이 방을 임대할 수 없다. 보초병은 불침번을 성실히 서야 한다. 상인들은 정직하게 거래하고 상품에 과도한 값을 매겨서는 안 된다. 다른 나라 왕을 섬기기 위해 우리 도시에서 용병을 모집할 수 없다.” (Van Halsema, 2007: 294-295)

1562년의 기록에 의하면 14명이 제네바에서 처형되었는데 이중 세 명은 강간, 다른 세 명은 청부살인, 또 다른 세 명은 반복된 심각한 절도, 두 명은 납색, 다른 두 명은 마술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은 위조 혐의였다(Benedict, 2009: 5-7). 이러한 도덕개혁은 결국 열매를 맺어 제네바의 도덕 수준은 놀라울 정도로 높아졌고 따라서 낙스는 제네바를 “그리스도의 가장 완전한 학교”라고 칭송할 정도였다(Knox, 1855: 240).

7) 경제 개혁

갈뱅의 가장 큰 공헌 중 하나는 경제 분야를 그리스도인의 삶에 매우 중요한 영역으로 포함한 것이다. 그는 부와 재산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선물로 인정하면서 창세기 2

장 15절의 주석을 통해 모든 사람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자신을 하나님의 청지기로 생각해야 함을 강조하였다(biblehub.com/commentaries/calvin/genesis/2.htm). 나아가 일과 예배를 구별하는 성/속(sacred/secular) 이원론(dualism)을 배격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직업에 최선을 다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정당한 방법으로 축적한 재산은 사회의 공익을 위해 공헌한 것으로 간주하였고 신명기 23장 19-20절 및 에스겔 18장 13절에 대해 설교하면서 사유재산 및 5%까지의 정당한 이자도 인정하였다(Calvin, 1863-1900: 121). 그가 정한 이 이자율은 당시의 고리대금업에 비교하면 매우 낮은 것이며 그 후 4세기 동안 스위스에서 유지되었는데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스위스의 은행업 및 경제가 번영하게 된 밑거름이 되었다(Bloomer, 2008: 109).

그는 경제 문제들은 구조적이라기보다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성 때문에 나타난다고 보면서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거나 고리대금업을 하는 것은 결코 용납하지 않았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부자들의 구제를 의무로 강조하였다. 이러한 청지기 정신으로 제네바 사회를 조화와 봉사가 구현되는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이런 성경적 경제관은 빈부격차를 조장하는 현대적 자본주의와 분명 다르며 공산주의 혁명을 통해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려고 했던 마르크스주의와도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며 오히려 성경에 나타난 초대교회가 보여준 자발적 나눔(행 2:44-45)의 사회를 구현하려는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나아가 깔뱅은 이자 받는 것에 대해 부자가 부자에게 돈을 빌려 주는 경우는 이자를 허용했지만 가난한 자에게 빌려 주는 경우에는 금했다(Calvin, 1871: 245). 또한 그는 일하지 않고 돈 버는 지주들, 귀족들 및 유산으로 사는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 일하고 서로 돌아보면서 부나 지식 또는 자원이 많은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할 의무가 있다는 상호성(reciprocity) 및 연대성(solidarity)의 원리를 주장했다(Bousma, 1988: 201-203; Wallace, 1988: 127). 이처럼 깔뱅은 기독교적 사회란 개인보다 공동체가 더 중요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임을 강조했다.

당시 제네바와 왔던 개신교 난민들 중에는 섬유, 인쇄 및 시계 제조공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세대를 지나면서 이러한 깔뱅의 사상에 영향을 받아 제네바의 변혁에 큰 공헌을 했다. 가령 그들 중 에스띠엔느(Robert Estienne) 및 바드(Conrad Bade)는 위대한 인쇄기술자로 많은 직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며 깔뱅의 고향 출신인 드 노르망디

(Laurent de Normandie)는 부유한 기업가였다. 또한 제네바는 ‘인디엔느(indienne)’라고 불리는 특수 섬유염색 분야에서도 국제적 명성을 얻었다.

1905년에 독일의 사회학자 베버(Max Weber)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Die protestantische Ethik und der Geist des Kapitalismus)』이라는 책을 출판했는데 여기서 그는 서구에서 근대 자본주의가 발생하게 된 이유는 개신교 윤리, 그 중에서도 직업소명설을 주장한 칼빈주의가 당시 개신교도들에게 영향을 주어 검소, 절약하면서 부지런히 그리고 열심히 일하여 그들의 기업을 발달시킴과 동시에, 재투자를 위한 부를 축적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Weber, 1905). 깔뱅의 윤리관에 따르면 부자는 창조주의 명령에 따라 사회적 약자를 도와야 할 의무를 가지는데 그리스도인의 경우 이것은 정의일 뿐만 아니라 사랑에 근거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부자는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는 가능한 적게 소비하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구제하며 그들이 적절한 직업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베버는 이러한 깔뱅의 윤리관과 자본주의 정신을 연결시키면서 우리가 자신을 위해 돈을 쓰지 않는다면 자본을 축적할 수 있고 이 자본은 다른 사람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투자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처럼 자본 축적과 일자리 창출은 개신교 사회에 큰 영향을 주어 지금도 스위스나 네덜란드 등 깔뱅의 영향을 받은 서구 개신교 국가들의 경제가 가톨릭 국가들보다 대체로 더 강함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베버의 주장에 대해서는 다양한 비판들이 제기되었다(최용준, 2014: 172-175). 가령 쾰바르트(Werner Sombart)는 스콜라 철학도 검약과 정직을 강조하고 나태와 고리대금업을 금지하여 자본주의의 발전을 가능케 하였다고 보면서 스페인, 아일랜드를 제외한 거의 모든 가톨릭 국가들도 자본주의를 촉진하였으며 오히려 개신교는 자본주의 경제활동에 적대적이었다고 주장했다(Sombart, 1913). 반면에 타우니(Richard H. Tawney)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의 발흥 간에 인과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깔뱅이 죽은 후에 칼빈주의는 다양한 변화를 겪었으므로 칼빈주의만을 유일한 것으로 보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Tawney, 1926). 나아가 로버트슨(H. M. Robertson)도 자본주의는 실제로 개신교보다 훨씬 이전인 14세기에 이태리에서 먼저 시작되었다고 보았다(Robertson, 1933). 그 외에도 한국, 일본, 대만, 홍콩 및 싱가포르와 같은 동아시아 5개국이 지난 20세기 말에 새롭게 발전시킨 자본주의 형태는 베버가 말하는 ‘개신교 윤리’가 아니라 ‘신유교 윤리’(the New Confucian Ethic)라고 하버드대의 투웨이밍

(Tu, Weining)은 주장했다(Tu, 1989: 81-97). 하지만 19세기 중엽에 마르크스가 유물 사관을 주창하면서 자본주의가 위기에 처했을 때 베버는 마르크스를 비판하는 동시에 유럽 자본주의사회가 가치상실 및 소외로 대표되는 불안한 사회라고 진단하면서 자본주의의 기저에 있는 종교적 가치를 새롭게 지적함으로써 처방전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는 그 공헌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맥그라스(Alistair McGrath)도 칼빈주의가 자본주의와 기업가 문화에 적어도 새로운 영향을 준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인정한다(McGrath, 1990: 253).

8) 사회 정치적 개혁

칼뱅은 당시 제네바가 영적, 도덕적 타락으로 총체적 위기에 처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예레미야 1장 9절을 주석하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신 것은 당시 사회 질서를 회복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www.ccel.org/ccel/calvin/calcom17.pdf) 또한 그의 명저인 『기독교 강요(*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수도원에서 명상하기 위해 사막이나 광야로 들어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사회적 책임과 의무들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됨을 강조했다(Calvin, 1961: IV, xiii, 16).

나아가 칼뱅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조화롭고 질서 있게 창조하셨으나 인간의 타락으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발생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성령의 역사로 완성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개혁 사역에 동참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사회 질서를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함으로 얻게 되는 것으로 보았기에 사회적 프로그램은 모두 인간의 근본적인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어야 했다. 나아가 그는 마태복음 12장 7절을 주석하면서 신자들이 사회를 정의롭게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라고 주장했다(www.ccel.org/ccel/calvin/calcom32.pdf).

당시 사회의 위계질서에 대해 칼뱅은 그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이것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것은 단지 하나의 가능한 사회 질서 방식이며 원칙적으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평등하다고 보았다. 노예제도에 관해서는 구약에 나타나고 신약에도 허용하는 것으로 보아 무조건 정죄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권세를 가진 자들의 사악함에 관해서는 창세기 6장 4절 주석에서 매우 강하게 비판하는 것을

볼 수 있다(www.ccel.org/ccel/calvin/calcom01.pdf).

나아가 칼뱅은 모든 사람이 양심에 의해 나름대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봄으로 인권 개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죄성을 가진 인간은 자주 양심을 어긴다. 따라서 양심 이상의 어떤 것이 요구되는데 그것이 바로 정치 제도라는 것이다. 따라서 칼뱅은 정치 제도란 우리의 양심이 발견하는 자연법이 실제로 적용되는 곳이라고 본다. 그는 『기독교강요』 4권 마지막 20장에서 정부의 형태를 군주제(monarchy), 귀족정치(aristocracy) 그리고 대중정치(popular ascendancy)로 구분한 후 군주제는 독재의 위험이 있고 귀족정도 소수의 과별이 생길 경향이 있으며 대중정치는 선동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귀족주의 혹은 귀족주의와 민주주의가 혼합된 제도(aristocracy, either pure or modified by popular government)라고 보았는데 그 이유는 왕들이 정의롭고 옳은 것으로부터 타락하지 않을 만큼 자신을 절제하는 일은 매우 드물고 항상 올바른 통찰력과 예민함 그리고 지혜를 가진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www.ccel.org/ccel/calvin/institutes.vi.xxi.html). 결국 여기서 그는 타락한 인간의 죄성을 현실적으로 직시하여 부패하기 쉬운 절대 군주제와 교황제를 비판하면서 정치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시민에 의해 선출된 대의적 공화정(republicanism)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제네바대학의 기독교윤리학 교수인 데어망쥬(François Dermange)는 칼뱅의 공화정 및 민주주의 사상을 언급하면서 칼뱅에게 있어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지배가 아니라 법이라고 강조한다 (www.coursera.org/learn/calvin/lecture/ebyUB/2-le-commandement-du-createur-the-creators-command). 칼뱅은 타락한 인간의 삶이란 규정이나 법 그리고 정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았고 이러한 정의는 십계명, 그 중에서도 인간관계에 관한 두 번째 부분에 기초하며 이를 한마디로 줄이면 황금률, 즉 “본인이 원치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강요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 황금률이야말로 도덕적 및 법적 정의의 기준이며 이 기준 앞에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칼뱅은 신명기 17장을 본문으로 설교하면서 절대군주가 권력을 아무렇게나 행사하는 것보다는 선출된 정치지도자들이 법에 따라 통치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강조했다(Calvin, 1863: 450-460). 왜냐하면 실제로 당시 프랑스의 왕들은 절대 권력을 휘두르면서 개신교도들의 생명을 위협했기 때문이다. 결국 데어망쥬는 칼뱅의 공화주의는 다음 세 요소에 기초해 있다고 본다. 첫째 법이란 모든 사람들을 공평히 다스리며, 개인의 양심에 의존한다. 둘째 정부는 이 법에 종속되며 정부 지도자들은 국민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은 정부에 의해 다스림을 받지만 그 정부 구성원들을 선출하며 법의 의미의 근원(the source of the law's meaning)이 된다. 나아가 그는 여기서 갈뱅의 민주주의 사상도 발견한다. 즉 정부의 권력 밖에 있으면서 국민의 의지를 대변하는 헌법이 존재하고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에 의해 선출되어 이 법을 집행하는 원리에 기초한 정치 제도가 민주주의라는 것이다(www.coursera.org/learn/calvin/lecture/ebyUB/2-le-commandement-du-createur-the-creators-command). 이러한 사상은 후에 장로교 정치제도 및 근대 민주정치 제도를 확립하는데 결정적으로 공헌하였다.²⁾

국가 및 정부에 관해서도 갈뱅은 중세 가톨릭적 전통을 비판하면서 정부는 인간의 악행을 통제하고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도라고 보면서 이 정부의 권위에 대해 시민들은 기본적으로 순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정부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저항할 권리가 있음도 인정했다. 즉 악한 군주나 통치자에 대해 무력으로 저항하기 보다는 관리들의 법적 직무 수행과 법질서 회복을 촉구하는 합법적인 저항을 추구해야 함을 주장했다. 이러한 정신은 결국 스페인의 전제 군주인 필립 2세에 대한 네덜란드의 독립 전쟁(1568-1648)으로 나타나게 되었으며 나아가 미국이 건국 당시 이신론(Deism)의 영향도 적지 않았으나 입법, 사법, 행정으로 권력을 삼분하여 서로 조화, 균형 그리고 견제하는 삼권분립의 기초를 놓는 데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³⁾ 또한 갈뱅은 영적 통치와 세속적 통치를 구분함으로써 제네바 시의회로부터 교회의 독자적 치리권을 확보했으나 이단 방지 및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양자가 협력해야 함도 강조했다.⁴⁾ 나아가 중앙집권적인 가톨릭정부와 달리 지방자치제가 발달한 스위스의 연방제도(federalism) 또한 갈뱅의 영향을 받은 것이며 네덜란드 등 다른 나라에도 퍼져 나갔다.

2) 이 사상의 영향으로 네덜란드는 1588년 세계 최초로 공화국(The Dutch Republic)을 세웠다.

3) 삼권분립을 18세기 미국 정부 제도에 도입하여 토마스 제퍼슨(Thomas Jefferson) 대통령을 도와 미국 헌법의 초안을 작성하고 재무장관을 지낸 알버트 갤러틴(Albert Gallatin)도 제네바 출신이었다(Bloomer, 2008: 110).

4) 네덜란드의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는 이 사상을 영역 주권(souvereiniteit in eigen kring) 사상으로 발전시켜 국가와 교회의 이원론적 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각자 고유한 권위와 기능이 있지만 동시에 상호 협력하는 유기적 관계임을 강조하였다(Kuyper, 1880).

9) 문화적 개혁

칼뱅은 루터가 강조한 칭의 교리뿐만 아니라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성화의 교리도 매우 강조하였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감사함으로 더욱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인문주의 교양교육을 통해 수사학, 자연과학, 미술 및 음악 등 학문 및 문화 영역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모든 학문은 신앙과 불가분리적으로 통합되어 있으며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로 보았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 문화는 복음과 분리될 수 없으며 따라서 모든 종류의 이원론을 배격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교회법을 제정하여 가령 예배에서 음악의 가치도 존중하고 회복하였던 것이다.

나아가 그의 기독교 강요 불어판은 간결한 문장과 정확한 용어 사용으로 당시 프랑스어의 근대화에 결정적으로 공헌하였다. 이런 칼뱅의 유산은 미국 청교도들의 생활 규범에도 깊이 뿌리내려 지금도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다.⁵⁾ 물론 현대 미국의 대중 문화는 이러한 전통을 점점 상실하고 있으나 최근 국제 테러와 금융위기 등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타임(Time)지가 “신칼빈주의(New Calvinism)”를 “지금 세계를 변화시키는 10대 이념들(10 Ideas Changing the World Right Now)” 중 하나로 선정한 것은 매우 의미가 깊다고 볼 수 있다(content.time.com/time/specials/packages/article/0,28804,1884779_1884782_1884760,00.html?iid=sr-link1).

10) 개혁의 마무리 (1555-1564)

칼뱅의 말년에는 더 이상 그의 권위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없었고 그는 국제적으로도 저명해졌다(Cottret 2000: 235). 1555년에 그는 영국 메리 여왕의 지배를 피해 제네바로 온 개신교도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했다. 그곳에 있던 낙스와 휘팅햄(William Whittingham)의 지도하에 그들은 자체 교회를 설립했으며 나중에 칼뱅의 개혁사상을 영국과 스코틀랜드로 확산시켰다(Parker 2006: 170-172). 그러나 칼뱅은 프랑스의 개혁에 더 큰 관심을 가져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책자들을 나눠주며 목회자들을 파송하였는데 1555년에서 1562년 사이에 100명 이상의 목회자들이 프랑스로 파송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물론 제네바 교회의 후원을 받았다.

5) 가령 미국의 메사추세츠(Massachusetts)주에서는 아직도 주일에 술을 판매할 수 없다고 한다.

깰뱅은 해외 선교에도 관심을 가져 1556년에는 아메리카 신대륙인 현재의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에 최초의 개신교 목회자인 뻬에르 리시에(Pierre Richier)를 포함한 14명의 선교단을 조직하여 파송하였다. 이들은 6개월에 걸친 항해 끝에 마침내 1557년 3월 10일 과나바라 만에 도착하여 첫 개신교 예배를 드렸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곳에 있던 가톨릭신자들 사이에 신학적 갈등(특히 성만찬교리에 대해)이 일어나자 칼빈주의자들 중 4명이 잡혀 신앙고백서를 쓰도록 강요당했다. 그 결과 “과나바라 신앙고백서(Guanabara Confession of Faith)”라는 신대륙 최초의 신앙고백서가 1558년에 작성되었다. 이것은 위그노 평신도들이었던 장 뒤 부르들(Jean du Bourdel), 마띠유 베르뇌일(Matthieu Verneuil), 뻬에르 부르동(Pierre Bourdon) 및 앙드레 라 폰(André la Fon) 네 명에 의해 12시간이라는 매우 짧은 시간에 완성되었다. 이 신앙고백서는 17개 조항으로 나뉘며 원래 라틴어로 기록되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나중에 나온 신앙고백서만큼이나 논리정연하고 나아가 신학적인 용어 사용뿐만 아니라 중간에 초대교부들까지 인용하는 것을 보면 이 평신도들의 신학적인 수준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다(Gillies, 1976).⁶⁾

약 30년 만에 제네바는 완전히 변화된 도시가 되었다. 인구는 두 배로 늘어났으며 경제는 더욱 활성화되었고 무엇보다 도시의 성격 자체가 새로워졌으며 그 결과 다른 도시들로부터도 존경을 받았다. 하지만 깰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진 동시에 조금이라도 이 말씀을 타협하면 금방 무질서의 문이 열릴지도 모른다는 깊은 두려움도 늘 있었다. 이와 더불어 제네바가 정치적으로 신생 독립 도시국가였기에 길드조직이 강하지 않았고 모든 기관들이 새롭게 출발하는 시기였으므로 그의 영향력이 보다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었다는 점 또한 그의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제네바의 변혁은 한 개혁자와 적절한 상

6) 하지만 이 신앙고백서를 작성한 네 명의 위그노들은 체포되어 순교를 당했고 그 후 리시에 목사를 비롯한 제네바 선교단은 7개월 정도 머물다가 10월 말에 추방당하고 말았다.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는 당시 선교단의 일원이었던 평신도 구두수선공 장 드 레리(Jean de Léry)가 “아메리카라고도 불린 브라질 땅에서의 여행 역사(*l'Histoire d'un voyage fait en la terre du Brésil, autrement dite Amérique*)”라는 기념비적인 책을 쓰게 되어(1578년) 당시 상황을 전해주고 있다. 그곳에서 돌아온 리시에에는 라 로셸(La Rochelle)에 개혁교회 목회자가 되었고 라 로셸은 한동안 프랑스 개신교의 중심지가 되었다. 그리고 2001년에 이 역사는 프랑스의 역사소설가인 장 크리스토프 루펑(Jean-Christophe Rufin)에 의해 “붉은 브라질(Rouge Brésil)”이라는 제목으로 소설화되었으며 그 후 영화로도 나왔다.

황이 만나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낼 수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Benedict, 2009: 12-13).

11) 칼뱅 이후의 제네바

칼뱅의 사후에도 제네바의 변혁은 계속되었다. 가령 은행가였던 에이나르(Jean-Gabriel Eynard)는 칼뱅의 영향을 받아 자기 재산의 많은 부분을 그리스 독립전쟁에 후원했으며 셀롱(Jean-Jacques de Sellon)은 노예제 폐지를 위해 기부했다. 하지만 제네바가 지금의 국제적인 도시로 발전하게 된 계기는 칼뱅과 그의 영향을 받은 뒤낭(Henri Dunant) 및 미국의 윌슨(T. Woodrow Wilson) 대통령의 공헌이 결정적이었다고 제네바대학의 교회사 교수인 그랑장(Michel Grandjean)은 예리하게 지적한다(www.coursera.org/learn/calvin/lecture/nOLsQ/1-le-mythe-de-geneve-the-myth-of-geneva).

가령 뒤낭은 칼뱅의 영향을 받았으며 1862년에 『*Un souvenir de Solferino*(솔페리노의 회상)』이라는 책을 출판하면서(Dunant, 2018) 국제 적십자사를 창설했다. 또한 그의 주도로 체결된 제네바 협약(Geneva Convention)은 구약성경의 아모스서에 기초하여 전쟁에서도 정당한 행위가 있어야 하며 특별히 전쟁 포로를 올바르게 처리해야 함을 강조한다. 나아가 물루즈(Mulhouse)의 개신교 지도자들은 아동 노동을 반대하여 법률을 개정하였고 이를 위해 국제기구의 필요성도 절감하여 국제 노동 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를 창설하여 제네바에 본부를 두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윌슨 대통령은 국제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 창설을 주창하면서 그 본부를 제네바에 두자고 제안했는데 이는 그가 대통령이 되기 이전 프린스턴 대학 총장을 역임한 칼빈주의자로서 제네바보다 정의의 원리가 더 잘 구현된 곳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1929년에 『*L'Esprit de Genève*(제네바의 정신)』이라는 에세이를 출판한 드 트라(Robert De Traz)는 제네바의 이런 독특한 면을 ‘신화(myth)’라고 부르면서 칼뱅 및 뒤낭 이외에도 루소(Jean-Jacques Rousseau)의 역할 또한 중요했다고 주장한다(De Traz, 1929). 그는 루소 또한 『*Du Contrat Social ou Principes du droit politique*(사회계약론)』을 통해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면서 공동 이익을 위해 계약을 맺어 국가를 형성한다고 주장하여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주었고 스위스의 민주주의 정치 발전에 공헌하였다고 보았다.⁷⁾ 나아가 뒤푸르(Alain Dufour)

도 제네바의 발전에 대한 깔뱅의 공헌을 인정하며 같은 ‘신화’라는 표현을 썼다(Dufour, 1959). 이처럼 깔뱅의 영향으로 적십자사와 국제연맹을 통해 제네바가 국제사회에서 정의를 구현하는 곳으로 인정되면서 그 후 국제연맹 본부는 국제연합(United Nations) 유럽본부가 되었고 스위스가 영세중립국이라는 장점이 가세하면서 전 세계의 국제기구들이 제네바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현재 제네바에 본부를 둔 대표적인 기구들을 보면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 사무소(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 사무소(UN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그리고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등이 있다. 또한 정부 간 조직들(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도 있는데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등이 있다. 기타 제네바 환경 네트워크(Geneva Environment Network)과 같은 단체 및 여러 NGO들도 이곳에 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로렉스(Rolux), 오메가(Omega) 등 스위스를 대표하는 여러 시계 가공업체들이 제네바에 있으며 UBS 등 스위스를 대표하는 은행들도 이곳에 있다.

하지만 깔뱅 사후 제네바와 스위스 개혁교회는 한동안 분열과 부패로 리더십을 상실했고 18세기에는 볼테르(Voltaire)의 계몽주의적 합리주의와 루소의 낭만주의적 이신론이 지배하면서 교회는 세속화되었다. 그러나 그 후 1816년에 스코틀랜드에서 제네바로 온 할데인(Robert Haldane)이 로마서 성경공부 모임을 시작하면서 다시 영적인 큰 부흥(*Le Réveil*)을 일으켜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이태리 및 헝가리 등 유럽 전역에 영향을 미쳤고(Bratt, 1964: 38ff) 아프리카 및 태평양의 불어권 국가들에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다.

21세기 현재 제네바는 개혁교회의 영향력이 다소 약화되어 다른 서구 도시들처럼 세속화된 도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깔뱅과 그의 사상을 따랐던 여러 사람들의 노력이 지금의 제네바를 만드는데 어느 정도 공헌했다는 사실 또한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7) 하지만 루소는 『사회계약론』 3부 17장에서 시민 종교를 다루면서 칼빈주의의 예정론과 그 사회정치적 함의에 대한 큰 반감을 드러내었다. 따라서 루소가 제네바에 공헌한 것은 깔뱅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보아야 한다.

III. 결론

본 논문은 칼뱅의 개혁이 제네바를 어떻게 총체적으로 변화시켰는지 고찰하였다. 칼뱅의 사상은 이론적이라기보다는 실천적이었다(Leith, 2010). 유럽의 모든 개신교도들이 이 작은 도시-국가를 하나의 개혁의 실험실 및 시범 프로젝트로 주목하면서 성경적 원칙 위에 한 국가가 세워지는 비전을 체험했다. 칼뱅은 설교, 치리 및 법제정을 통해 당시 제네바의 모든 필요를 정확히 통찰하여 성경적 원리와 더불어 실제적 적용으로 대안을 제시하여 교회 및 사회변혁의 사명을 잘 감당하였다. 각 구체적인 이슈마다 그가 대처한 글들을 보면 그의 성경적 지식뿐만 아니라 사고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칼뱅의 개혁은 완벽했는가? 아니면 그에게도 약점들은 없었을까? 다소 비판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먼저 성경적 원리들을 적용함에 있어 그도 다소 경직된 율법주의를 추구한 경향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가령 옷차림이나 여가 활동에 관해 매우 엄격했던 점을 언급할 수 있겠다. 나아가 교회가 성경을 적용하는 것을 강조하여 프랑스와 신대륙에 선교사들을 보내긴 했으나 타 지역 선교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다. 또한 칼뱅도 만인제사장설을 강조했으나 역시 목회자에게 다소 많은 권위를 부여함으로 상대적으로 평신도의 역할을 약화시켰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뱅은 단지 한 명의 신학자가 아니라 제네바라는 도시를 총체적으로 변화시킨 개혁자였음은 분명하다. 단지 복음을 듣고 구원만 받으면 전부가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이 온전하게 구속되어야 함을 가르쳤다. 나아가 그는 당시 개발된 인쇄술을 최대한 이용하여 그의 설교와 강의는 즉시 기록되어 출판된 후 일주일 이내로 전 유럽에 퍼져나가 개혁 운동을 확장시키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 또한 교육을 통해 인재를 계속 배출하여 그의 사후 오늘의 제네바가 되는 데에도 어느 정도 기여했다.

칼뱅의 이러한 개혁사상 및 사역을 정리하면서 한국에 적용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그는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모든 일에 오직 성경을 기준으로(*Sola Scriptura*) 삼았다는 점이다. 성경 원어에 능통했고 성령의 조명도 강조하였고 나아가 성경적 경건을 실천하며 수많은 인재를 길러내었다. 하지만 최근 한국의 교회는 형식적으로는 성경을 강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세속적 물질주의의 영향으로 세상의 비판을 받고 있으며 나

아가 많은 기독교 학교들도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교회 및 기독교학자들은 이와 같은 갈뱅의 성경 중심적 세계관을 더욱 깊이 연구하면서 신앙생활과 통합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여 한국사회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는 동시에 진정한 변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갈뱅의 개혁은 치리회 및 시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이고 단호하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현대 한국교회는 치리가 거의 실종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단지 교인 수자를 늘리는 교회 성장에만 치중하여 지금과 같이 사회의 신뢰를 잃게 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는 양적 성장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올바른 그리스도인들로 양육할 것인가라는 본질적인 주제에 대해 한국의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이 더욱 깊이 기도하면서 고민하여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로 갈뱅은 단지 교회와 신학만 개혁한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신중한 전략들을 세워 변혁을 추구했다(Bousma, 1988: 193). 그는 당시 여러 문제들에 대해 하나님의 우주적 주권(*legislateur et roy*) 및 통치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Calvin, 1961: IX, xiii, 16)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해 나갔다. 이런 칼빈주의는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에 네덜란드에서 신칼빈주의 운동으로 발전하였는데 이를 주도했던 카이퍼(Abraham Kuyper)는 신학자와 목회자로 네덜란드의 세속화된 국가교회를 개혁하고 자유대학교를 세워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해 수많은 인재들을 키웠으며 기독교신문도 창간하여 언론 영역에도 진출한 후 기독교당까지 창당하여 수상으로 지내면서 사회 전체의 개혁을 추구했다. 그러나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일부 깨어있는 분들이 성시화 운동을 통해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다수는 성숙을 구별하는 이원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주일 중심의 개인 신앙에 머물면서 사회 개혁의 진정한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치 분야에서 더 많은 기독교정치인들 및 기독교정치학자들이 갈뱅의 법제정을 통한 개혁의 노력을 연구하여 한국의 후진적 정치 및 법제를 어떻게 변혁시켜야 할 지 깊이 고민하며 노력해야 한다.

넷째로 갈뱅의 개혁을 통해 제네바는 근본적으로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며 그 영향력은 지금 전 세계에 미치고 있다. 사실 한국의 근대사에도 선교사들 및 민족의 선각자들이 개혁과 교육을 통해 위대한 인재

들을 배출하여 한국의 독립 및 근대화에 중요한 공헌을 했다. 하지만 20세기 후반부터 많은 교회들이 분열되었고 기독교 학교들이 세속화되고 있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나아가 한국 사회의 높은 자살률, 저출산 및 고령화, 소득불평등의 심화 및 불공정한 제반 문제들에 대해 한국의 기독교성인들은 보다 더 긴밀히 협력하면서 깔뱅의 총체적 변혁 모델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한국 사회의 전체적인 변혁을 적극 주도해 나갈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동일한 비전을 가진 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한 영향력을 미쳐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깔뱅은 타락한 인간이 도덕적으로 얼마나 부패할 수 있는지를 철저히 인식하였기에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 앞과 세상 앞에서 책임지는 청지기로 정직하게 자신의 직업에 충실하면서 근면 성실한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야 함을 모범적으로 보여 주었다. 한국 사회 역시 경제적으로는 많은 발전을 이루었으나 성숙한 책임의식을 가진 윤리적 삶을 살아내는 수준에서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도덕적으로도 모범을 보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혁의 사명을 보다 구체적으로 감당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김재성 (1997). **칼빈과 개혁신학의 기초**. 수원: 합동신학대학원출판부.
- [Kim, J. S. (1997). *Calvin and the Foundation of Reformed Theology*, Suwon: Hapdong Theological Seminary Press.]
- 문병호 (2015). **칼빈 신학: 근본 성경 교리 해석**. 서울: 지평서원.
- [Moon, B. H. (2015). *Theology of Calvin: Interpretation of basic biblical doctrines*, Seoul: Horizon Books.]
- 안인섭 (2015). **칼빈 -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정의 사람**. 서울: 익투스.
- [An, I. S. (2015). *Calvin - A man of passion for God's glory*, Seoul: Ixthus Press.]
- 오덕교 (2005). **종교개혁사**. 수원: 합동신학대학원출판부.
- [Oh, D. G. (2005). *History of Reformation*, Suwon: Hapdong Theological Seminary Press.]
- 이상규 (2009). 칼빈과 구호활동. **칼빈과 사회**. 고신대학교 출판부.
- [Lee, S. G. (2009). "Calvin and His Ministry for the Poor" *Calvin and Society*, Kosin University Press.]
- 정성구 (1980). **칼빈의 생애와 사상**. 서울: 세종문화사.
- [Chung, S. G. (1980). *Calvin's Life and Thought*, Seoul: SejongKosin University Press.]
- 최용준 (2014). 칼빈주의와 네덜란드의 기업가정신: 역사적 고찰을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19(1)(통권 58호), 153-181.
- [Choi, Y. J. (2014). "Calvinism and the Dutch Entrepreneurship: a historical research" *Faith and Scholarship*, 19(1) (No. 58), 153-181.]
- Bainton, R. H. (1985). *The Reformation of the Sixteenth Century*, Boston: Beacon Press.
- Biéler, A. C. (1959). *La Pensée économique et sociale de Calvin*, Geneva.
- Bouwsma, W. J. (1988). *John Calvin: A Sixteenth Century Portrait*, Oxford Univ. Press
- Beaudreau, B. C. (2016). "Calvinism, Huguenots and the Industrial Revolution" www.iceg.uniparthenope.it/Submission_files/Beaudreau.pdf (검색일 2017.10.06.)
- Benedict, P. (2009). "Calvin and the Transformation of Geneva", in *John Calvin's Impact on Church and Society (1509-2009)*. éd. Hirzel M.E. and Sallmann, M. Grand Rapids, MI, Cambridge, UK: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13.

Bloomer, T. A. (2009). "Calvin's Geneva: small city, big impact" HOPE magazine, Winter 2009.

_____. (2008). "Calvin and Geneva: Nation-Building Missions" in *His Kingdom Come: An Integrated Approach to Discipling the Nations and Fulfilling the Great Commission*, edited by Jim Stier et al., YWAM Publishing. 103-118.

Bratt, J. H. Ed. Miller, C., Lagerwey, W., Strikwerda, E. (1964). *The Rise and Development of Calvinism*, Grand Rapids: Eerdmans.

Calvin, J. (1870). "Discours d'adieu aux ministres" (28 avril 1564) (PDF), dans Calvin, J. *Opera quae supersunt omnia*, Brunsvigae, [puis] Berolini, C. A. Schwetschke ; New York ; London, Johnson Reprint [etc.], 1863-1900, t. 9, col. 891-894.d396qusza40orc.cloudfront.net/calvin%2Fmateriel%20semaine%201%2Fcalvin_1564_discours_adieu_ministres.pdf (검색일 2017.10.06.).

_____, J. (1863). "Sermon on the book of Deuteronomy" *Opera quae supersunt omnia*, C. A. Schwetschke, 27:450-460; on Dt 17.

_____, J. (1863-1900). *Sermon on Deuteronomy, 23:8-20, Ioannis Calvini Opera* in the *Corpus Reformatorum*, Brunswick. 28: 121.

_____, J. (1871). ed. E. Cunitz, J.W. Baum, E. Reuss, "De Usuris", *Opera quae supersunt omnia*, Vol. 10.

_____, J. (1961).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trans. by Ford Lewis Battles. London.

Cottret, B. (2000). [1995], *Calvin: Biographie* [Calvin: A Biography] (in French), Translated by McDonald, M. W.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Dufour, A. (1959/4). "Le mythe de Genève au temps de Calvin", *Revue suisse d'histoire*, 9, 489-518.

Dunant, J. H. (2018). *Un souvenir de Sofférino*, (Classic Reprint) (French Edition) Forgotten Books.

Ganoczy, A. (2004). "Calvin's life", in McKim, D.K., *The Cambridge Companion to John Calvi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Gillies, J. (1976). *The Martyrs of Guanabara*. Moody Press.

Graham, W. F. (1971). *The constructive revolutionary: John Calvin & his socio-economic impact* John Knox Press.

Höpfl, H. (1985). *The Christian Polity of John Calvi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nox, J. (1855). *The Works of John Knox*: Vol 4. Johnstone & Hunter.
- Kuyper, A. (1880). *Souvereiniteit in Eigen Kring*, Amsterdam: Kruyt.
- Larson, M. J. (2009). *Calvin's Doctrine of the State: A Reformed Doctrine and Its American Trajectory, The Revolutionary War, and the Founding of the Republic*. Wipf and Stock.
- Leith, J. H. (2010). *John Calvin's Doctrine of the Christian Life* Wipf & Stock Pub.
- McGrath, A. E. (1990). *A Life of John Calvin: A Study in the Shaping of Western Culture*, Oxford: Basil Blackwell.
- McNeill, J. T. (1967). *The History and Character of CALVINISM*, Oxford Univ. Press.
- Parker, T. H. L. (2006). *John Calvin: A Biography*, Oxford: Lion Hudson plc.
- Reid, W. S. Ed. (1982). *John Calvin: His Influence in the Western World*, Grand Rapids: Academie Books.
- Robertson, H. M. (1933) *Aspects of Economic Individualism: A Criticism of Max Weber and His School*,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w York: Macmillan Co.
- Rousseau, J. J. (1762) *Du Contrat Social ou Principes du droit politique*, Amsterdam.
- Schaff, P. (2006). "§ 108. Calvin's Struggle with the Patriots and Libertines",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VIII. Hendrickson Publishers, Inc.; 3rd edition.
- Sombart, W. (1913). *Der Bourgeois*, München und Leipzig: Duncker & Humblot.
- Tawney R. H. (1926) *Religion and the Rise of Capitalism*, New York: Harcourt, Brace and Company.
- Traz, R. de. (1929). *L'Esprit de Genève*, Lausanne, L'Age d'Homme.
- Treasure, G. (2013). *The Huguenots*,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 Press.
- Tu, Weiming (1989) "The Rise of Industrial East Asia: The Role of Confucian Values" *The Copenhagen Journal of Asian Studies* ej.lib.cbs.dk/index.php/cjas/article/viewFile/1767/1787.Van
- Halsema, T. (1981). *This was John Calvin*, Baker. 강변교회 청소년학교 역 (2007), 『이 사람, 존 칼빈』. 성약출판사 [Gangbyun Church Youth School. trans. (2007). Holy Covenant Press.]
- Wallace, R. S. (1988). *Calvin, Geneva and the Reformation: A Study of Calvin as Social Reformer, Churchman, Pastor and Theologian*,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 Weber, M. (2009). *Die protestantische Ethik und der Geist des Kapitalismus*, Anaconda.

biblehub.com/commentaries/calvin/genesis/2.htm (검색일 2018.05.06.)
huguenotmuseum.org/event/huguenots-and-the-industrial-revolution (검색일 2018.05.07.)
www.ccel.org/ccel/calvin/calcom17.pdf (검색일 2018.05.09.)
www.ccel.org/ccel/calvin/calcom32.pdf (검색일 2018.05.09.)
www.ccel.org/ccel/calvin/calcom01.pdf (검색일 2018.05.09.)
www.ccel.org/ccel/calvin/calcom32.ii.ix.html?scrBook=Matt&scrCh=12&scrV=7#ii.ix
-p35.1 (검색일 2018.07.09.)
www.coursera.org/learn/calvin/lecture/ebyUB/2-le-commandement-du-createur-th
e-creators-command (검색일 2018.05.10.)
content.time.com/time/specials/packages/article/0,28804,1884779_1884782_1884760,00.
html?iid=sr-link1 (검색일 2018.05.11.)
www.coursera.org/learn/calvin/lecture/n0LsQ/1-le-mythe-de-geneve-the-myth-of
-geneva (검색일 2018.05.12.)

논문초록

칼빈주의가 제네바의 변혁에 미친 영향에 관한 고찰

최용준 (한동대학교)

본 논문은 스위스 제네바(Geneva)에서 장 칼뱅(Jean Calvin)의 주도하에 일어났던 교회개혁(Reformation)이 어떻게 그 도시 전체를 변혁(transformation)시켰는가에 고찰이다. 칼뱅은 독일의 루터(Martin Luther)와 스위스 취리히(Zürich)의 츠빙글리(Huldrych Zwingli)에 이어 대표적인 2세대 개혁자로서 제네바 지역에서 다양한 사역들을 펼쳐 괄목할 만한 업적을 남겼으며 그와 함께 왔던 위그노들은 그들의 직업과 기술로 제네바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낭트 칙령의 폐지(1685) 이후 제네바는 다시금 프랑스 개신교도들의 피난처가 되었고 이들은 목회자, 교사, 법률가, 의사 시계제조, 은행가, 금속기술사 및 인쇄기술자들로 18세기 제네바의 산업을 부흥시키는데 공헌했다. 그 결과 제네바는 학문과 예술의 중심이 되었으며 “개신교의 로마(Protestant Rome)” 및 “언덕 위의 도시(the city set on a hill)”라는 별명까지 얻으면서 시계제조, 은행, 인쇄 및 특수 섬유염색 분야에서 국제적 명성을 얻게 되었다. 나아가 제네바는 현재 국제기구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글로벌 센터가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칼뱅의 개혁 사상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개신교도들을 통해 제네바를 변혁시켰는지 그의 사역 전후를 비교하여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그가 남긴 중요한 유산은 무엇인지 고찰하겠다. 그 후 결론적으로 이러한 역사가 한국 사회에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도출하겠다.

주제어 : 칼빈주의, 종교개혁, 위그노, 제네바, 사회개혁

